

합격기  
(제54회 행시 일반행정직 합격)

## ‘속도’보다는 ‘방향’을...



박 효 철

- 1978년 12월 생
- 익산 남성고등학교 졸업
- 서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54회(2010년) 행시 일반행정직 합격

### I. 시작하며...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를 자랑했던 겨울이 다 지나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에게 있어 겨울은 낙방의 슬픔을 삭이며 다시 1차 걱정예 노심초사하던 그런 계절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마음만은 춥지 않게 보낼 수 있었던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최종합격을 알리는 감격스런 문자를 받은 지도 이제 4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제가 예비 사무원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수험기간을 거쳐 서른이 훌쩍 넘은 2010년에 서야 합격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수기를 읽기만 하던 입장에서 스스로가 수기를 작성하는 입장이 되니 감개무량하면서도 늦은 나이에 고전을 면치 못하다 운 좋게 합격한 입장에서 이런 합격수기를 남겨도 되는 것인지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황금같은 20대의 대부분을 책상앞에서 보낸 것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그간의 반복된 좌절과 새로운 도전, 인내의 시간들은 분명 앞으로의 공직생활 및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이 저와 비슷한 길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약간의 tip이라도 될 수 있다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글을 시작합니다.

### II. 수험생활에 대한 소회

#### 1. 행정고시에의 입문

군에서 제대한 후 복학하여 정신없이 학교생활만 하다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주위엔 공인회계사 준비나 대기업, 금융권 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던 친구들이 많았었고 저 역시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웬지 그러한 길은 제 적성에도 맞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길이라 생각되었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적성검사나 인성검사를 받아보고 상담센터에서 진로상담도 받아 보면서 심사숙고 하는 과정 중에 선택한 길이 공직자로서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 빠를 뻔했다는 각오로, 합격할 때까지 공부 하겠다 라는 각오로 고시생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이 정도로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계속된 실패 속에서도 꿈을 접지 않고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애초의 심사숙고를 통해 얻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 2. 첫 번째 1차 합격

2005년 처음으로 1차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엔 PSAT가 처음 도입되었으나 1차에 헌법과 국사가 남아있던 시기였고 두 과목을 꾸준히 공부해 온 덕에 꽤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최종합격 때보다도 더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지만 노력에 비해 과도한 높은 점수를 얻은 나머지 시험에 대한 겸손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더욱 2차공부에 매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도 이정도만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공부도 하는등 마는등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역시 2차 시험의 처참한 결과였지만 2차시험 한번에 되는 게 어디 그리 쉽겠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공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 3. 1차 낙방의 좌절

1차를 여유있게 합격하였으나 2차에서 고배를 마시던 패턴은 2006년에도 이어졌습니다. 과락인 과목도 없었고 2차 점수는 어느정도 상승하긴 하였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합격은 어렵없는 실력이었습니다. 어영부영하면서 두 번의 2차를 치르고 난 후 맞이한 2007년 이제 1차 시험은 100% PSAT로 완전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1차를 여유롭게 합격할 수 있었던 데는 잔존해 있던 헌법 등의 도움이 컸었지만 PSAT 역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1차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고 이에 1차 준비를 소홀히 한 상태로 수험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대한 겸손함을 갖지 못하고 자만한 상태로 맞이한 시험은 당연하게도 불합격의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1차 시험은 그저 통과외레 정도로만 생각했던 저의 자만심에 철퇴가 내리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자괴감,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인생이 늙어 빠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 등에 시달리는 날들이 몇 달간 이

어졌습니다.

#### 4. 2차 합격에 이르기까지

안이한 태도로 적당히 공부하면서 시험에 대한 겸손함을 갖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해 반성하면서 지난 시간은 잊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으로 2008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나이 서른이 넘어 있었고 졸업한지도 3년이 넘어서고 있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나를 최선을 다한 결과 1차는 무리없이 통과할 수 있었으나 2차에선 또 다시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기는 했지만 스스로 초시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서 시험을 치렀기에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내년을 대비하려 하였습니다. 아직도 제 자신이 실력면에서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에 낙방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고 내년엔 기필코 합격하리라는 각오로 고시촌으로 이사를 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은 그동안 살면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혹시나 체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비싼 보약까지 사먹고, 통풍이라는 병에 걸려가면서 악전고투하며 보냈던 시기였습니다. 하루하루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합격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내며 공부하였고 2차 시험을 치른 후 어느 정도 합격을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소한 점수차로 2차에서 다시 고배를 마시게 되었고 이때는 2년전 1차에서 낙방했던 때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실망도 크지 않았나합니

다. 좀처럼 마음을 다잡기도 힘들었고 에너지를 다 써버려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2010년은 뭔가 운이 따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상 2009년에 비해 공부시간도 적었고 집중력도 이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뭔가 잘 풀리지 않을까하는 근거없는 기대가 들곤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입법고시 1차에 합격하여 2차 시험도 치러보았고 이 때 떨어졌지만 합격권에 거의 근접한 점수를 얻어 아쉬우면서도 행시 2차에 대한 희망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른 2차 시험.. 시험 후 느낌은 전년과 비슷했으나 최종 결과는 전년과 다르게 합격으로 나타났습니다.

#### 5. 최종 합격에의 도달

2차 합격의 문자를 받는 순간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매년 느꼈던 그 침통함을 느끼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다. 부모님께 불합격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제 그 지겨운 공부를 다시 안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3차 면접이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었고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에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스터디 및 학원수업을 들으면서 1달간 면접을 준비하였고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긴장감 속에 면접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 동안 악몽도 꾸어가면서 노심초사하였으나 다행히도 최종합격하게 되어 7년의 시간 동안 지어 왔던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

게 되었습니다.

### III. 공부방법

#### 1. PSAT

누구나 다 지적하듯이 PSAT 학습의 기본은 기출문제의 철저한 숙지일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실제시간에 맞춰 풀어 보면서 자신이 어떤 유형의 문제에 약한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시간 조절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최소 직전 3년간의 기출문제는 철저히 분석하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기출문제 그 자체에 너무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직전해의 문제가 쉬웠던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의 준비에 그쳐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의 유형 및 그 유형에 있어 어떤 접근을 취해야 할지를 숙지하는 것이 올바른 기출문제 학습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원 모강의 경우 문제의 질이라든지 완성도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감을 듣거나 아니면 문제를 따로 구해서 풀어보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유명강사의 모강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해보았고 나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평가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모강문제가 기출문제를 토대로 많이 제작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효과를 거

둘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컨디션 조절입니다. 사실 시험 당일날 컨디션에 따라 두 세문제 정도는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2007년 1차 시험 당시 물론 허술한 준비도 있었지만 당일 컨디션 조절 실패로 명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 것도 낙방의 한 원인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시험 1주일 전부터 컨디션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컨디션 조절이라는게 다른 게 아니라 잠은 최대한 많이 자고 TV도 보고 관악산 산책로에서 맑은 공기도 쐬어 보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당일날 잠을 설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혹 시험 전날 잠을 설쳤더라도 그간 미리 보충해둔 체력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작년 1차 전날 긴장감에 완전히 밤을 꼬박 새우고 시험장에 갔지만 그 전에 미리 체력을 비축해 놓았기에 무리 없이 하루 시험을 잘 치루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 2. 2차 과목

##### 1) 경제학

경제학은 제작년 48점대에 그쳐 불합격의 큰 원인이 된 과목이었으나 올해는 60점대 후반으로 합격을 견인해 준 과목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이 가장 자신 없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어떤 과목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학원 강의도 김진욱 강사, 황중휴 강사, 지금은 떠났지만 최병권 강사까지 유명강사의 강의는 다 들었습니다. 교재는 미시의 경

우 이준구저 미시경제학을 기본으로 성백남, 정갑영저 미시경제학, 이영환저 미시경제학을 보충으로 하였으며 거시의 경우 정운찬, 김영식저 거시경제학을 기본으로 맨류저 거시경제학을 보충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김진욱 강사의 최근 3년간 3, 4순환 문제를 무한 반복하면서 문제 적응력도 기르고 답안 쓰는 연습도 하였습니다.

사실 경제학은 취약과목이라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기 보다는 그냥 50점만 넘기면 선방이다 생각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1년 만에 점수가 20점 가까이 상승하긴 하였으나 실력의 향상이 있었다기 보다는 그냥 운 좋게도 그나마 입맛에 맞는 문제가 출제되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수험생활 초창기 경제학보다도 저를 애먹게 했던 과목이었으나 어느 정도 학습이 이뤄진 후에는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되었습니다. 제작년과 작년 모두 60점대 중반의 점수로 만족할만한 점수를 얻었던 과목이었습니다. 교재는 수험초기에는 장태주저 기본서를 보았으나 나중에 정하중저 기본서로 바꾸었고 개인적으로 만족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의 경우 처음에는 김정일 강사의 강의를 따라갔으나 나중에 성봉근 강사의 강의로 바꾸게 되었고 이 역시 개인적으로 만족한 선택이었습니다.

행정법 공부는 최대한 사례위주로 접근하려 노력했습니다. 기본서를 100번 읽어도 사례연습을 안하면 행정법 고득

점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본서의 숙지는 중요하지만 수험 행정법은 결국 사례풀이 능력으로 판가를 납니다. 기본서를 무턱대고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사례를 먼저 보고 그에 해당하는 기본서 부분을 찾아보는 형태로 공부하였고 그 결과 처음에는 행정법의 방대한 양에 질겁했었으나 차차 공부하면서 양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사례가 나와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김연태 사례집과 성봉근 강사의 교수 논제 및 순환별 모의고사, 고시계에 수록된 교수사례 들을 참고하였습니다.

## 3) 행정학

행정학의 경우는 항상 고득점이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못해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행정학을 전략과목으로 삼으려는 욕심에 여러 책을 접하고 여러 강사의 수업을 다 들었지만 지식의 넓이는 넓어질지언정 깊이가 더해지지 않아 좀처럼 고득점이 힘들었습니다. 강의의 경우 수험초기에는 백현관 강사의 기본강의를 들었고 이후 이동호, 정경호, 백승준 강사 등의 순환강의를 들었습니다. 교재는 유민봉저 한국행정학을 기본으로 하고 강의교재로 쓰는 강사들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학은 역시 방대하지만 행정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맥을 잡아내면 의외로 공부하기가 쉬워진다고들 합니다. 제가 그 큰 맥을 잡아냈는지는 의문이지만 대체로 그러한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주제들에 주목하고 이

를 암기하는 방법은 암기한 주제가 나왔을 경우 소위 대박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불의타가 나올 경우 대처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총론, 조직, 인사, 재무 등에 있어 중요부분은 암기 하면서도 최대한 전체를 관통하는 논리를 찾아내어 어떤 주제든지 간에 적절히 변용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민주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큰 틀로 삼아 당해 주제에 어떻게든 적용하려 애썼습니다.

또한 현실 사례를 중시하는 행정학의 특성상 신문 주요 기사를 접하고 이를 행정학적으로 연계시켜 생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주위에도 서울신문 행정면 등을 스캔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인터넷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퍼와서 가끔 보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 4) 정치학

정치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흥미를 갖고 있던 학문이었고 학교에서도 정치외교학을 복수전공했기에 처음 시험에 뛰어들 때부터 웬지 모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험 정치학은 학교에서 접하던 정치학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고 그 웬지 모를 자신감은 정치학 공부에 투자할 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정치학도 행정학과 마찬가지로 고득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 좌절감을 주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결과도 제작년엔 60점을 넘기도 했으나 오히려 합격한 작년에는 50점대 초반에 그

치는 들쭉날쭉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강의의 경우 신희섭 강사와 정원준 강사의 순환강의를 들었고 현대 정치과정의 동학,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현대 정치의 이해, 국제 정세의 이해 등의 교재와 신희섭 강사의 수험정치학, 정원준 강의의 논문집 등을 읽었습니다.

정치학 역시 행정학처럼 현실 정치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문제도 복한 원조문제나 소통의 문제 등 현실적인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정치적 이슈들은 놓치지 않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두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학문적인 논문이나 비평 등도 최소한 눈에 익혀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5) 정책학

선택과목으로 정책학을 선택한 것은 순전히 강의 지원이 쉽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은 정보체계론도 많이 선택하고 정보체계론 강의도 많이 개설되지만 제가 처음 시작하던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정책학을 나중에 바꾸기도 위해서 그냥 쪽 선택해왔습니다. 정책학은 타 선택과목에 비해 분량이 많은 단점이 있으나(민법, 국제법 등은 제외하고) IT산업의 발전에 맞춰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체계론 등과 달리 크게 변화하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적어 한번 해놓으면 오래간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책학은 점수를 짜게 준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제 경우 나름 답안을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점수가 28점에

그저 혹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의는 백현관 강사의 강의를 들었고 당시 교재인 공공정책의 제문제를 주로 보았습니다.

### 3. 3차 면접

막상 2차를 합격하고 면접 준비를 하려하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절박함도 있었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 면접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학원에도 등록하고 면접스터디에도 들어갔습니다.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학원과 스터디를 통해 토론, PT, 인성면접 등을 실전처럼 준비하였고 학원 및 스터디 이외의 시간에는 정부 각 부처 사이트나 청와대 홈페이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이슈투데이 등을 들락거리며 자료를 찾고 숙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학원의 유용성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면접스터디는 필수입니다. 스터디를 통해 실전과 유사한 연습을 해볼 수도 있거니와 다른 스터디원과의 대화와 피드백 등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발견할 수도 있고 면접시 어필할 수 있는 자신의 장점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실제 집행되고 있는 정부정책 및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넓히도록 해야 하고 실제 면접 중에 있을지 모르는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요령도 연습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IV. 전반적 수험생활과 관련하여

### 1. 절대 공부시간에 대한 압박

합격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쌓여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 공부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혹자는 최소 하루 8시간에 주당 50시간 이상은 해야한다고도 하고 혹자는 그 정도로는 어렵도 없고 주당 60시간 이상은 기본으로 해야한다고도 합니다. 저도 매일 하루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만 10시간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대 시간 확보에 대한 압박이 또 하나의 수험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시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동안의 집중도이고 공부에 있어서의 능동적 자세일 것입니다. 집중도 안되고 짜증만 나는 상태에서 책만 붙들고 앉아있는 10시간 보다는 뚜렷한 목표의식 하에 집중하여 앉아있는 5시간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절대 시간 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좀 더 집중력 있는 학습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2. 스트레스 관리 문제

정신적인 기복없이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수험기간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슬럼프가 찾아와 수험생활을 늪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나 그에 대응하는 방법 등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으나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영화감상, TV시청 등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음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매주 주일날 한주간의 인기 오락프로(무한도전, 황금어장 등)들을 몰아서 다운받아 보면서 한주의 스트레스를 풀었고 그날그날 스트레스가 쌓이면 서울대 운동장이나 관악산 산책로를 걸으면서 마음을 잡으려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3. 스테디나학원 강의가 필수적인지

흔히 초심자들이 질문하곤 합니다. 스테디는 꼭 해야 되나요? 학원은 안다 니면 안되는 건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학원 문턱에도 안가보고 합격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철저히 학원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합격한 분들도 있습니다. 스테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최종합격에 이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니 만큼 적절하게 사용하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과감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학원 강의는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강의 자체에 종속되어 여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 과거 PSAT 스테디를 잠깐 했던 것과 3차 면접스테디를 제외하

면 스테디를 해본적은 없습니다. 스테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레 그리 되었습니다. 대신 학원 2차 강의는 3, 4순환 위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강의 자체가 도움된 면도 있고 오전에 강의를 듣다 보니 자연스레 일찍 일어나게 되어 생활패턴이 잡히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 4. 장수생으로서 받는 특별한 스트레스

앞서 이야기 하였지만 저는 7년의 세월을 거쳐 합격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 역시 합격 결정 이전에는 사회적 낭비로 취급되는 30대 노장 수험생에 불과했고 계속된 실패로 인한 무력감과 먼저 합격해 나가는 친구들을 보며 느끼는 조바심 등에 움츠러드는 장수생이었습니다. 장수생으로서 느끼는 불안감과 절박함은 일반적인 수험스트레스와는 또 다른 종류의 압박이 아닌가 합니다. 남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나이에 경제적 능력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자괴감도 들거니와 갈수록 머리가 더 나빠져가는 듯한 느낌, 타성에 젖어가는 생활태도 등이 장수생을 더욱더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 이겨내야 할 몫입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한 존재이나 합격하게 되면 기나긴 인고의 세월을 이겨낸 대단한 인물로 그 위상이 바뀔 수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해야 합니다. 지금 이시간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노장 수험생 여러분들 끝까지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 V. 맺으며...

지난 수험 기간 동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 해, 두 해 낙방을 경험하면서 ‘속도’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져갔지만 그것보다도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려 노력했습니다. 속도는 치질지연정 방향은 제대로 잡고 나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간 결과 지금의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비록 더딘 발걸음이지만 정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길을 가다보면 분명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든 수험기간 일지라도 끝까지 자신을 믿으며 굳건히 공부하다 보면 좀 늦을지라도 분명 합격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의 사례가 묵묵히 꿈을 위해 정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하나의 희망의 증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험생으로서의 시간을 마무리 짓고 공직생활의 출발점에 서 있는 지금 처음 수험생의 길로 들어설 때의 초심을 더욱 기억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우산’이라는 노래가 있고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비 다 개고 맑은 세상오면 깊은 신장속에 세워져 잊혀지더라도 다시

어려운 날 오면 누군가의 머리위에 내 몸을 펼쳐 가려줄 꿈을 꾸네”... 평상시엔 있는 듯 없는 듯 잊혀진 존재일 지라도 세상이 어려워질 때, 혹은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스스로를 다잡으며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짧지 않은 수험기간이었던 만큼 저를 붙잡아주고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 먼저 불효자식 때문에 노심초사 하시면서도 내색 안하시고 묵묵히 믿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합격의 기쁨이 있다면 이는 오롯이 그분들의 몫입니다. 복당이 같은 조카들 우진이, 우현이 덕에 외삼촌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 또한 감사합니다. 수험기간 동안 옆에서 함께해준 온형석군, 전승철군, 박찬명군, 윤영성군에게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떨어졌을 때 잊지 않고 찾아준 박창원군, 윤달민군, 홍구 형님께에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익수군, 이재성군, 강주원군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분명 있을 거라고 응원합니다. 그 외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